

공정무역 생산자의 조직화와 국제적 관계망 필리핀 마스코바도 생산자 조직을 사례로*

Network approach on the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Fair
Trade Producers: case study on Mascovado producers' organization
in Panay, the Philippines

엄은희**

공정무역은 1960년대 ‘원조가 아닌 무역’을 기치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대안적 무역 운동이다. 공정무역은 제1세계의 각성된 소비자와 제3세계의 가난한 생산자와의 재접속을 지향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구조는 1세계의 의식성과 제3세계의 수동성을 재강화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제무역에 대한 상품사슬 접근을 넘어서 최근 지리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구생산네트워크 접근법은 공정무역 생산자의 주체적 역할을 보여주기엔 적합한 개념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의 생산자들이 단순히 서구 공정무역 조직의 생산파트너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국제무역을 조직하는 일주체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필리핀의 한 마스코바도 생산자조직을 사례로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결과적으로 공정무역 생산자 조직을 중심에 둔 지구생산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함으로써 공정무역에 대한 하나의 대안 담론을 생산할 수 있었다.

주요어: 공정무역, 지구생산네트워크 접근법, 생산자 조직, 대안 담론, 마스코바도

* 본 연구의 현지조사활동은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인문한국 과제(HK2007-361-AM0005)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iCOOP생협연구소 연구원(이메일)

1. 서론

공정무역이란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생산자들에게 착취적인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조건 하에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절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 무역의 한 형태이다(Nicolas and Opal, 2005: 6). 공정무역 주창자들 및 연구자들은 대체로 관행 국제무역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의 관행 자유무역이 제1세계에 위치한 제도화된 구매자의 이윤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근본적으로 권력의 불평등성을 내재하기 때문에 제3세계의 가난한 생산자나 노동자의 생활수준의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¹⁾ 그러면서 공정무역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새로운 관계 모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정무역의 긍정성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²⁾

1) 자유무역(free trade)과 공정무역(fair trade) 간의 선명한 비교를 통해 공정무역의 대안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은 공정무역이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학계가 이러한 대안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관련된 논의는 랜섬(Ransom, 2001)이나 켄킨스(Jenkins, 2002)를 참고할 것.

2) 반면, 시장의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시장에 저항하는 공정무역의 양가적 속성으로 인해 공정무역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프리델(Fridell, 2006)의 경우에는 공정 무역 논의는 변형적 신자유주의적 시장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고, 트렌트만(Trentmann, 2007)은 현재 서구의 공정무역이 윤리적 측면을 새롭게 강조할 뿐 과거 공정무역 성립 이전 제국주의의 기호나 취향이 공정무역을 통해 반성 없이 되살아나는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그 외에도 공정무역이 주류화를 선언한 이후, 시장에서의 성공이 ‘그 자체로 목적’(Raynolds et al., 2007)이 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공정무역의 운동성이 시장성에 의해 사장되어버렸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무역에 대한 상업적 침투가 공정무역의 정의와 비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정당성을 확보한 비판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공정무역의 성장이 실질적으로 제3세계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 그리고 공정무역 진영의 역동적인 분화와 진화가 지니는 의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전자의 비판을 수용하되 후자의 긍정성을 보다 주목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선이다.

공정무역이 1세계와 3세계의 새로운 관계를 기반으로 할 때 공정무역을 통해 제3세계의 생산자들의 삶이 개선된 구체적으로 사례들은 1세계에서 공정무역을 확산시키려는 캠페인 전략으로 자주 동원된다. 하지만 동원되는 대부분의 사례들은 단편적인 소개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에 비해 공정무역의 성공이나 그것의 역사는 주로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에서 공정무역을 시작한 단체들이나 공정무역의 상업적 성공의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보여준다. 국제 공정무역 운동의 대표조직인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가 제공하는 『공정무역 60년사』라는 공식문서에서도 공정무역이 출발점을 인도주의적 성향을 지닌 미국인들의 움직임에서 찾고 있다.³⁾ 공정무역이 북반구의 선진국들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들 국가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균등성을 문제시하는 운동가들과 윤리적 소비주의(ethical consumerism)를 실천할 수 있는 조직되고 각성된 소비자 집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Hartwick, 2000; Hughes, 2001). 이에 혹자는 공정무역 운동은 각성된 소비자가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던 운동이라 평가하기도 한다(이정옥, 2008). 아직까지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발화하는 제3세계 출신의 공정무역 연구자가 없는 것도 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공정무역에 관한 연구와 담론들에서 선진국 소비자들의 각성된 ‘의식’과 ‘실천’의 측면이 주로 강조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서구에서 생산된 공정무역 연구들이 공정무역 상품의 생산자들의 수동성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공정무역과 관한 연구와 담론에서 소비자 중심성의 강조는 공정무역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지구적 연대 혹은 아래로부터의 호혜적 관계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3)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텐사우전드빌리지(Ten Thousands villages)’라는 조직을 통해 미국인들이 푸에르토리코로부터 자수 제품을 구매한 1946년을 공정무역의 출발점으로 삼는다(WFTO, 2009).

문제의식은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공정무역이란 연구 영역을 만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한국의 경우처럼 최근⁴⁾에 들어서야 공정무역시장에 참여하고, 공정무역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비자 주도성과 생산자 수동성의 이분 구도도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해석 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이정옥(2008)의 평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강화해 주는 매개가 되었다.

한국 공정무역의 현재 상황을 인도적 지원과 소비자의 웰빙 의식의 확산을 결합한 유형으로, 서구의 공정무역운동이 소비자의 조직과 소비자의 각성을 통해 현지 생산자조직을 재구성한 반면 한국은 공정 무역을 통해 조직화된 생산자 조직을 바탕으로 한국의 소비자를 설득하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강조는 연구자).

다시 말해, 실제의 무역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보자면,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공정무역의 경우 새롭게 공정무역 생산지를 개척하는 경우보다는 이미 조직화되어 있고 국제 공정무역 네트워크(들) 안에서 이미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지 생산조직과 연계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형적인 제1세계가 아닌 신흥발전국인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뒤늦게 공정무역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1세계 의식적 소비자와 제3세계 가난한 생산자와의 만남’이라는 틀에 박힌 공정무역 레퍼토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반복 사용하는 것은 분명 제한한 관점만이 유통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정무역의 소비자 주도성이 강조되는 기존 담론에 도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재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 공정무역 상품 ‘그 자체(itself)와 그것을 생산하는 생산자 —가 아니라 — ‘조

4) 서구의 공정무역의 역사가 60여 년을 넘어선 것에 비해 한국에서 공정무역은 2003년에 최초로 시도되었으나 상업적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하였고, 이듬해인 2004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엄은희, 2009).

직'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실제로 공정무역 생산자 조직은 공정무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무역에 관여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은 일종의 학습 기회가 되어 새로운 주체성의 획득과 권한강화(empowerment)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공정무역 생산자들은 제3세계의 가난한 생산자 집단이란 정체성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국제적 무역 관계망 안에서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발전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생산자 조직의 변화발전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증명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필리핀 파나이 섬의 마스코바도(Mascovado: 비정제 설탕) 생산자 조직의 조직화 및 국제화 과정을 관계망 모형에 근거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공정무역 상품 생산자의 변화된 특성은 지구상품사슬모형(GCC, Global Commodity Chain Model, 이하 GCC)보다 최근 경제지리학 일각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구생산네트워크모형(GPN, Global Production Network Model, 이하 GPN)을 통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산자의 실천에서 출발하는 네트워크 관계에 대한 지리역사적 분석은 능동 대 수동의 이분법을 벗어나 공정무역 상품 생산자 집단을 호혜적 국제관계 형성의 일 주체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는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9년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총 10일(파나이 체류는 총 7일)에 걸친 현지 조사를 기초로 한다. 실제적인 현장 조사에 앞서서는 이 지역과의 마스코바도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해 온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담당자와 사전 면담을 수행하였고, 이 조직에서 발간한 다양한 현장방문 기록들을 점검하였다. 본 조사 기간 동안에는 필리핀 파나이 섬에 체류하면서 마스코바도 생산자 조직이자 공정무역 수출업체인 파나이공정무역센터(PFTC, Panay Fair Trade Center 이하 PFTC)의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생산현장을 방문하였다. 면담의 기록은 녹음과 전사 및 번역의 과정을 거쳤으며, 전사 후의 기록은 현지 면담자에게 e-mail로 전송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쳤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위해 지구화된 경제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활용되어 왔던 지구적 상품사슬(GCC) 접근의 원리와 한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구생산네트워크(GPN) 접근에 대해 요약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마스코바도라는 비정제 설탕에 대한 변화되어 온 사회적 의미의 궤적을 다섯 개의 구분되는 필리핀의 역사 블록(historical bloc) 안에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4절에서는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마스코바도 생산조직인 필리핀 파나이섬의 PFTC의 설립의 배경과 현황에 대해 조망하게 될 것이며, 5절에서는 PFTC를 중심에 두고 이들이 맺고 있는 지역 및 국제 공정무역 네트워크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 6절은 결론으로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바라본 공정무역 생산자 조직의 주체성의 의의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을 짚어보게 될 것이다.

2. 이론적 검토: 지구무역에 대한 변화하는 접근법

지구화된 경제 활동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 간의 연속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상호연관된 일종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들로 경제학과 지리학 등에서는 사슬과 네트워크 개념이 사용되어왔다(한주성, 2009; Murray, 2006). 본 절에서는 우선 Poter(1990)에 의해 제안되고, Gereffi(1994)에 의해 발전된 지구 상품사슬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사슬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적 접근법과 그것의 의의를 차례로 정리하겠다.

1) 지구 경제에 대한 상품사슬 접근법

가치 사슬(value chain)은 포터(Michael Porter)가 그의 저서 『경쟁 우위

(Competitive Advantage)』(1990[2008])에서 제안한 후 유명해진 경영관리 기법이다. 그는 기업경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정혁신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였다. 이 개념은 이후 종속이론 연구자들과 지리학자들에게 폭넓게 수용되어 왔다. 제러피(Gereffi, 1994)는 이를 발전시켜 지구경제의 복잡성을 지도화할 수 있는 가장 조직적인 단위로 지구상품사슬(global commodity chains)을 제안하였다. 그는 GCC라는 개념들을 통해 “지구, 국가, 지역의 분석 단위 안에 분산되어 존재한다고 여겨져 왔던 경제 활동의 프로세스들의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Gereffi, 1994: 2)”고 평가하였다.

제러피는 생산 체계의 다양한 부문을 연계하는 상품사슬을 거버넌스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상품사슬, 즉 구매자 주도 사슬(buyer-driven chain)과 생산자주도 사슬(producer-driven chain)로 구분한다(1994). 생산자 주도 사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국적 기업이 생산양식과 전반적인 사슬의 진행방향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는 비교적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발견될 수 있다. 예컨대, 지구화된 자동차 산업은 수천 개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층화된 생산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는데, 조립라인은 다양한 수준의 요소 공급자들의 연계를 통제하면서 전체 생산양식을 통제한다. 반면 구매자주도 사슬은 사슬의 발달과 확장에 대한 통제권이 행위자 수준으로 낮아지며 통상적으로 ‘탈중심화된’ 네트워크를 발달시킨다. 대표적인 예로는 완구, 의류, 신발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상품의 생산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Gwynne et al, 2003: 168). 통상 구매자주도 사슬에서 구매자의 지위를 누리는 행위자(agents)는 다국적 기업들이다. 이들은 주로 저임금 노동력의 확보가 가능한 저개발국에 공장 없는 다수의 제조업자(체)와의 하청계약(sub-contracting)을 통해 생산자들을 통제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전유한다.

제러피의 지구상품사슬모형은 기존에 블랙박스처럼 존재했던 다양한 행위자들(기업, 국가, 지역 등)을 상품의 이동경로에 따라 지구경제활동의

행위자로 위치지음으로써 지구 경제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신장시켰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구매자주도 사슬과 생산자주도 사슬의 이분화는 실질적인 상품이동의 메커니즘보다는 ‘행위자들 간의 정치학’(한주성, 2005), 즉 구조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종속이론의 한계를 그대로 되풀이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⁵⁾ 나아가 머레이(Murray, 2006)와 같은 비판적 인문지리학자들은 상품사슬 개념이 다국적 기업과 국민국가에 너무나 많은 권력을 부여하였고, 상품 이동의 선형성이 과대강조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사슬의 각 결절들 간의 규제적 측면 — 예컨대 국가 수준 혹은 WTO와 같은 국제무역에 대한 규제들 — 에 대해서 전혀 분석된 바가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Whatmore, 2002).

2) 사슬을 넘어 네트워크로

GCC 모델의 한계를 비판해 온 Dicken et al.(2001)을 비롯한 일부 지리학자들은 사슬 개념을 네트워크 개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Actor-Network Theory)에 기초하여 사슬모형의 선형성과 구조적 결정론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들은 지구적 경제활동은 구조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공간적으로 펼쳐진 네트워크적 관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일정한 ‘의도성’을 갖추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권력구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Hughes and Reimer(2004) 역시 생산에서 소비로 단선적으로 연결되는

5) 최근까지도 지구상품사슬 및 지구가치사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제러피는 사슬(chains)이란 용어를 포기하지는 않지만, 2000년대 이후 국제 거래(transaction)와 산업기구 상의 주요한 변화에 의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세계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생산네트워크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러피 등(Gereffi et al., 2005)은 1) 거래의 복잡성, 2) 거래를 코드화하는 능력, 3) 공급기반에서의 가용력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지구가치사슬의 거버넌스 유형을 a) 시장(markets)주도형, b) 모듈화된 가치사슬형(modular value chains), c) 관계가치사슬형(relation value chains), d) 포획된가치사슬형(captive value chains), e) 위계형(hierarchy)으로 구분하였다.

상품사슬에 비해 각각의 연결고리에서 보다 자유로운 검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품네트워크적 접근의 가능성을 보다 인정하는 듯하다. 지구상품사슬에서는 다국적기업들로 대표되는 지구적 생산자들과나 최종 구매자들이 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면, 네트워크 접근에서는 이들 행위자 외에도 디자인이나 연구개발, 상품의 평가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NGO들이나 소비자 단체들도 주요한 행위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Hughes and Reimer, 2004). 나아가 최근 코어 등(Coe et al., 2008)은 지구상품사슬이나 지구가치사슬 접근법이 상품을 중심으로 기업 간 거래에 집중한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며, 역동적이며 다양한 유연성이 지배하는 지구생산 관계에 대한 발견적 혹은 문제해결적 이론틀(heuristic framework)로 지구생산네트워크(GPN)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는 한주성(2009)이 네트워크에 대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일방향의 상품교환을 중개하는 기업의 행위에 주목하기보다 복선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방향의 정보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모델로 설명한 바 있다.

3) 네트워크 분석과 지구무역에 대한 윤리적 접근

네트워크적 관점을 차용하게 되면, 기존의 선도기업이나 공급 기업의 단순 구도를 넘어서 네트워크상의 다른 위치로 분석의 초점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Coe et al., 2008). 또한 네트워크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지구적 상품이동 과정을 살피려는 접근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에 대한 윤리적 분석이 가능해 진다(Dicken et al., 2001). 다시 말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고려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적 이론은 행위자의 개별적 행위의 범위와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발생하는 결과들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Whatmore and Thorn(1997)는 ‘공정무역’ 커피 생산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원거리 타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와 저항적 지구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둘째, 네트워

크적 이론은 구조결정론적 거대 이론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 네트워크상에서 경제적 행위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중층적으로 결정되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네트워크적 관계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지구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나 거대주장과 같은 포괄적 논리를 제시할 필요가 사라진다. 대신 개별 행위자들의 장소 관련 위치성(place-related situatedness)이나 이들이 맺고 있는 네트워크의 영역성(territoriality)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Whatmore and Thorn(1997)는 커피 공정무역에 대해 지구상품 네트워크 모형에 입각한 연구를 통해, 관행무역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넘어 대안적/윤리적 무역 행위에 대해 네트워크적 접근의 가능성을 개척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생산자보다는 복구의 각성된 소비자들의 지식, 교육, 문화적 선호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복구의 소비자를 중심축으로 한 공정무역의 이분화 된 구도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네트워크적 접근의 중심 추를 선진국의 소비자에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로 옮기고자 한다. 즉, 파나이공정무역센터(PFTC)라는 공정무역 조직을 중심으로 이들의 사회적 의미와 위치성의 형성과정 및 이들이 현재 맺고 있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피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필리핀에서 ‘만’ 생산되는 마스코바도라는 상품이 필리핀의 사회적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 구조 속에 존재하는지 필리핀 설탕산업의 역사를 통해 먼저 정초시키고는 작업을 다음의 3절에서 선행하고자 한다.

3. 필리핀에서 마스코바도와 설탕 생산의 역사적 맥락

설탕⁶⁾은 오늘날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장 기본적인 상품화된 식

6) 사전적 정의에 따른 설탕(雪糖)은 “맛이 달고 물에 잘 녹는 결정체”이지만, 한국의 식품위생법은 설탕을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등에서 추출한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한 백설탕, 갈색설탕 등”(식약청, 2009)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

품 중 하나이다. 설탕의 대부분은 정제된 것이든 원재료 그대로이든 관계없이 열대작물인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다.⁷⁾ 2002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세계 설탕 생산량은 1300만 ha의 땅에서 1억 톤에 달하며, 대부분은 인도와 브라질에서 생산되었다. 카리브 해의 바베이도스(Barbados)와 같은 나라에서는 설탕이 농업 — 나아가 국가산업 — 의 근간이다(James, 2004).

마스코바도라는 용어는 스페인어의 mascabado에서 유래했으며, ‘원재료(raw) 혹은 정제되지 않은(unrefined)’을 의미한다고 한다. 마스코바도는 보통의 황설탕에 비해 훨씬 입자가 굵고 끈적거리는 흑색에 가깝다. 대부분의 설탕은 현재 정제 과정에서 이온수지교환 과정을 통해 수율을 높이는 것에 비해, 마스코바도는 그 자체의 원료, 즉 사탕수수 원액의 향기와 색깔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취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⁸⁾ 이러한 비정제 갈색 설탕은 근대적 정제기술이 도입되기 전 사탕수수에서 착즙된 원재료에 여타의 첨가제 없이 전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사탕수수가 도입된 대부분의 아열대 지방에서 유사한 제품이 발견된다. 이러한 비정제 설탕은 지역에 따라 필리핀에서는 마스코바도(Mascovado)로, 인도에서는 재저리(jaggery), 방글라데시에서는 거르(gur), 콜롬비아에서는 타넬라(tanella) 등으로 불린다(Inquirer, 2008.5.25). 정리하자면, 마스코바도는 다양한 열대 국가에서 생산되는 비정제 설탕 중 필리핀에서 생산된

의에 따르면 마스코바도는 제조시 정제과정(이온수지교환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정제 원당이기 때문에 국내법 상 설탕이라 부를 수 없다. 따라서 식약청수입 식품 기준에 의하면 현재 마스코바도는 설탕이 아니라 당류가공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탕을 사전적 정의 그대로, 결정화된 당류 일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자 하며 이 경우 마스코바도도 광의의 설탕에 속하게 된다. 한국의 식품위생법이나 근대적 산업화된 의미의 설탕을 지칭할 경우는 따로 ‘정제 설탕’으로 표기하겠다.

- 7) 비(非)열대지방인 유럽 등지에서는 사탕무에서 당밀을 추출하는 설탕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이들 북구 국가들은 자국의 사탕무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남반구의 설탕 생산 국가들이 수입(revenue)이 축소되었다(agribusinessweek, 2008.6.24).

8) <http://en.wikipedia.org/wiki/Muscovado>.

것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이다.

1800년에서 1970년대 후반까지 필리핀, 특히 네그로스 지방의 대표적인 수출상품 중 하나였다(agribusinessweek, 2008.6.24). 2002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비정제설탕은 13.8MT에 달하는데, 최대 생산국은 9.8MT을 생산하는 인도이며, 그 뒤를 콜롬비아와 파키스탄이 잇고 있다. 필리핀은 8번째 생산국으로 약 0.1MT를 생산하는데, 이는 전체 생산량의 0.8%에 해당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필리핀이란 국가적 맥락 안에서 마스코바도의 재배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 다섯 시기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Larkin, 1993).

1) 자연의 선물에서 재배용 작물로

선사시대 이래로 필리핀 군도의 선주민들은 이미 수수 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설탕이 생산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식민지시기이다. 식민시대 이전 섬의 주민들은 사탕수수를 그 자체로 씹어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지며, 때로 아기를 위한 쌀과 섞어 암죽을 만들 때 사용되기도 했다. 14세기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원대의 해외원정단을 이끈 왕대연(汪大淵, Wang Tayuan)이 필리핀의 여러 섬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사탕수수 활용법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일부에서는 사탕수수를 발효시켜 술을 담기도 했다고 한다(Shurz, 1939; Larkin, 1993에서 재인용). 설탕이 필리핀 관련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565년으로, 군도에서 영구 정착을 시도한 집단이 멕시코에서 보급 물품의 일환으로 가져온 기록이 있다(Larkin, 1993: 22).

설탕 제조기술이 처음 필리핀에 어떻게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다. 하지만 라킨은 기호식품으로 설탕을 꼭 필요로 했던 스페인 점령자들 중 일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가격을 보존하기 위해 필리핀 내에서 설탕 제조를 독려하지 않았으리라 추정한다(Larkin, 1993: 43).

두 개의 원목 롤러 사이에 사탕수수를 통과시켜 원액을 추출하고, 이를 토기에 담아 끓인 후, 결정화시켜 설탕을 생산하는 방식은 중국과 지중해 지역에서 16세기 이후 이미 널리 퍼져있었다. 라킨은 스페인 점령자들과 중국인 양자 모두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필리핀에 이러한 기술을 도입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스페인 점령자들이 설탕 플랜테이션을 필리핀에서 시도한 것은 17세기의 첫 10년 동안의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 먼저 본섬인 루손 섬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비사야스 지방으로 확대되었다. 늘어가는 필리핀 내 설탕 생산량은 곧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을 대체하였고, 필리핀에서 설탕을 자급하게 되자 가격도 곧 하락하였다고 한다(Mintz, 1985; Larkin, 1993에서 재인용).

2) 스페인의 식민지배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의 출현

스페인 식민지 시기 동안 필리핀에서 설탕산업이 굳건히 뿌리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은 선주민 사회나 필리핀 국내 산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Phelan, 1959; Larkin, 1993에서 재인용). 설탕은 필리핀의 선주민과 식민지 관리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일부로 포함되었지만 토착민들이나 해외 무역에서 주요한 품목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스페인 점령기 동안 필리핀의 설탕산업은 여전히 맹아적 수준이었다(Larkin, 1993: 45). 하지만 19세기 초에 이르러 진정한 플랜테이션이 중부 루손에서 시작되었으며, 곧이어 네그로스 섬을 비롯한 필리핀 중부의 수많은 섬으로 확산되어 갔는데, 이는 노동력 풀의 변화와 계급 분화의 계기가 되어 필리핀의 근대적 사회관계를 촉진시켰다(Larkin, 1993: 42). 팜팡가를 비롯한 중부 루손 지역에서는 노동력이 풍부했지만, 네그로스 섬 서부 지역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근 일로일로에서 대규모의 농업 인구가 네그로스 섬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Larkin, 1993: 44). 본 연구의 대상지인 파나이 섬의 사탕수수 재배의 역사도 이러한 경로를 거쳐 네그로스 섬에서 이전 된 것으로 추정된다.⁹⁾

이러한 변화를 근거로 라킨은 비록 발전의 속도는 늦었을지언정, 스페인 식민지 시기 필리핀의 설탕산업은 기본적인 근대화의 초보적 특성을 지녔다고 평가한다(Larkin, 1993: 45). 설탕수수의 재배에 토착화된 높은 비중의 외국자본 참여, 경제 행위의 철저한 분업,¹⁰⁾ 플랜테이션 시스템이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필리핀 설탕산업에 분명히 구분되는 변화가 시작된 것은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부터이다. 필리핀의 토착 사탕수수 생산자들이 외국 기업과 식민지 기업들을 통해 국제적 상업 네트워크와 접촉하기 시작했으며, 이로써 본격적인 수출용 설탕 수요에 대비한 전환의 비등점을 형성한 것이다.

3) 식민시기 필리핀 설탕산업의 근대화

180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의 설탕산업은 산업적 성격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필리핀 설탕에 대한 거대한 수요처로 영국이 등장한 것과 관련된다.¹¹⁾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스페인으로 부터 필리핀 군도를 양도받은 이래¹²⁾로 보다 질적인 전환으로 변모해 간다. 필리핀 내 사탕수수의 재배지가 급증하였을 뿐 아니라 수출이 대폭 확산되면서, 필리핀의 설탕업이 세계 시장 안에 깊숙하게 포섭되기

9) PFTC 직원 인터뷰(Romeo, 2009.08.24).

10) 토착 필리피노들이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초보적인 열탕처리까지 끝내면, 중국 상인, 유럽과 미국의 대리인들, 이베리아의 매니저들이 가공, 보관 판매를 담당하는 분업 구조를 말한다. 이들 노동 분업은 국내·외로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이윤 획득에서도 확연히 분리되었다(Larkin, 1993: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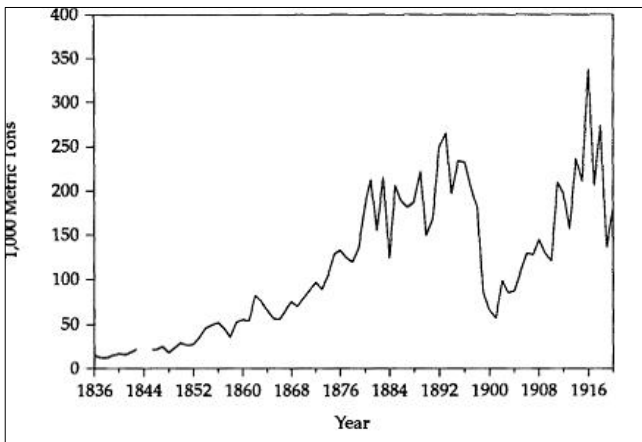
11) 가장 극적인 전환은 1840년대 경 인도에서 노예 노동에 의한 사탕수수 경작이 금지되면서, 영국의 설탕 수입지가 인도에서 필리핀으로 급전환되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Larkin, 1993: 49). 2003년 네그로스 섬을 방문한 한국의 한 NGO 활동가의 기록에서도 이 시기 네그로스 섬에 대규모 영국 자본이 이전된 사실이 밝혀져 있다(박영숙, 2003)

12) 1898년 파리협약을 통해 스페인 정부는 2000만 달러에 필리핀을 미국 정부에 양도하였다.

시작한 것이다(Larkin, 1993: 46).

이러한 변화는 필리핀의 농촌 경관과 사회구조에도 분명한 근대화가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Billig, 2003). 설탕산업화의 촉진은 경관의 측면에서 사탕수수의 재배지를 필리핀 안에서 대표적인 단작의 환금작물 재배지역으로 변환시켰고, 사회적 측면에서 해당 지역의 지도자들이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 정책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전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뾰뾰한 정글지역이 집약적인 대규모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지대로 바뀐 것인데, 이로 인해 남미에서와 유사한 대농장, 즉 하시엔다(hacienda)가 필리핀에서도 출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루손의 팜팡가(Pampanga) 지역과 네그로스 섬 서부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진행되었다(Larkins, 1993: 46).

<그림 1> 필리핀 설탕 수출량(1836~1920)



(출처: Fernández and Jeréz, 1875; Larkin, 1993: 46에서 재인용).

위의 <그림 1>은 필리핀의 설탕산업의 산업화 시기의 설탕 수출량의 추이를 보여준다. 1836년과 비교할 때 1916년의 설탕 수출량은 대략

2135%가 상승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 과정은 해외 수요의 극적인 상승 — 특히, 영국 — 에 따른 것이다. 1900년대 초반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설탕 생산량이 세계적으로 급감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필리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전후 미국의 식민지로서의 역할이 공고해지면서, 필리핀은 세계적으로 폭증하는 설탕시장의 수요에 대해 가장 안정된 생산이 보장되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Larkin, 1993: 49).

192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30년대 중반까지 필리핀 설탕산업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우산 하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국의 관세 체계는 필리핀산(産) 농산물이 미국 시장에 접근함에 있어 우선권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필리핀 내 설탕 생산량은 예외적으로 폭증하는 해외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가공 시설도 증가되어야만 했다. 중심부 천장이 높고 구분되어 있는 창고 형태의 구조에 높이 솟은 굴뚝을 갖춘 새로운 시설은 설탕산업의 새 시대를 상징하는 징표가 되었다(Larkin, 1993: 148).

정리하자면, 1800년대 초반 이래로 필리핀의 설탕산업은 분명 산업화를 지향하고 있었으나, 그 시기 상 국제시장에서의 역할과 국내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미친 영향은 그 산업을 지배했던 외국 자본의 국적에 따라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스페인의 식민지 시기 동안에 분명 플랜테이션을 비롯한 설탕산업 근대화의 맹아가 발생하였지만, 그 수요는 필리핀 국내(필리핀인과 스페인 관리)로 제한되었다. 그러던 것이 1800년대 중반 영국의 설탕 수입원으로 포섭되면서 필리핀 설탕산업의 국제화는 매우 가속화되었다. 1900년대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 필리핀의 설탕산업은 다시 미국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1920년 이후 급증하는 외국 수요 — 특히 미국 — 을 맞추기 위해 필리핀 내 설탕 가공 시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미국 자본은 그들의 선호하는 정제 백설탕을 위한 설탕 착즙 시설(sugar milling facilities)을 갖춘 정제 공장이 대량 도입되었다.

4) 가난한 이들의 설당이 된 마스코바도

1920년대 이래로 미국식 정제 공장이 신설되고 표준으로 확산되면서, 필리핀 설탕산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 첫째, 전체 필리핀 설탕산업 내 미국자본과 필리핀 자본의 역할 변화이다. 미국식 정제공장은 원재료 생산자인 필리핀 지주들과 정제 설탕 생산자인 미국 자본 간의 역할 분리 및 이윤 차별화를 심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사탕수수 하시엔다의 지주인 필리핀 엘리트 집단들 역시 정제 공장의 소유주들과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Larkin, 1993: 185~200). 1935년 미국이 필리핀에서의 직접 식민 통치 대신 필리핀 자치 정부(Commonwealth government)¹³⁾를 수립한 1935년 이후에는 미국 내 시장 접근성이 변화되었다. 이전에 미국정부에서 제공하던 우선권이 약화되었고, 관세에서도 남미의 설탕산지들과 경쟁을 해야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설탕산업은 하향 고착화가 지속되었고, 수출량도 <표 1>과 같이 위축되어 갔다.

<표 1> 필리핀 설탕 수출량의 변화(MT)

년도	수출량	미국 관세법 하의 할당량	총수출 대비 가치비율(%)
1934	1,152,841	920,971	59
1935	516,233	833,123	35
1936	899,838	968,935	45
1937	871,045	984,581	38
1938	868,253	959,281	43
1939	874,728	955,143	32
1940	976,474	1,004,477	31
1941	775,651	996,161	n.a.

출처: Ballinger, 1971; Larkin, 1993: 202에서 재인용.

13) 커먼웰스 정부의 성립과 관련된 사항은 엄은희(2008)를 참고할 것.

둘째, 1800년대까지 필리핀 설탕산업은 마스코바도를 중심으로 생산되었다면, 1900년대에는 정제 설탕이 주요수출품이 되었다. 2008년 PDAP(Philippine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me)의 팩트란(Jerry Pacturan)은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마스코바도 생산은 그것이 원래 있던 자리, 즉 (소규모 농가의) 뒷마당으로 되돌아갔다”(Sunday Inquirer Magazine, 2008.05.25)고 평가하면서, 이 시기 마스코바도의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증언하였다.

마스코바도가 정제백설탕에 자리를 내주면서, 마스코바도의 상징적 위상도 약화되었다. 1800년대 중반 설탕 정제 기술이 발명된 이래로, 서구인들에게 있어 마스코바도는 정제 백설탕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것 혹은 낙후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1844년 당시 영국 정부가 당시 필리핀의 무역 담당관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영국 자본가들은 “마스코바도가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마스코바도에 관한 이미지는 이후에도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설탕(poor man's sugar)”으로 재생산되면서 최근까지 이어져왔다. 그 후 마스코바도 생산은 과거의 하시엔다 지역 중에서도 매우 격리된 일부 지역¹⁵⁾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Inquirer, 2008.05.25).

5) 공정무역으로 되살아난 마스코바도

1980년대 초반 국제 설탕 가격의 폭락은 필리핀의 특히 비샤야스 지방에 크나큰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국제 시장 조건의 악화와 더

14) <http://www.isle-of-man.com/manxnotebook/fulltext/hk1890/ch04.htm>.

15) 대규모 하시엔다가 해체된 후, 생태학적인 격소지역(patch)에서만 마스코바도의 생산이 유지된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는 안티크, 빠가시나, 딸락(이상 루손 섬의 팜광가), 일로일로, 바탕가스, 네그로스 옥스덴탈(이상 비샤야스 지방), 부키드논, 다바오 델 쉬르, 술탄 쿠다랏, 노스 코타바토(이상 민다나오 섬) 등이 포함된다.

불어 오랜 가뭄 끝에 닥친 두 차례의 대형 태풍으로 인해, 대부분의 하시엔다 영주들이 사탕수수 농사를 포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조건 변화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사탕수수 생산의 핵심지역이었던 비사야스 지역의 기아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특히, 네그로스 섬에서 35만 명에 달하는 사탕수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기아사태를 일으킬 정도 심각한 재난 사태로 이어졌다(박영숙, 2003). 이에 당시 네그로스의 중심도시 바콜로드(Bacolod) 교구의 교구장 포티치(Antonio Y. Fortich) 신부는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 이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과 복구 더 나아가 장기적인 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국제적 원조를 요청하였다(김정희, 2006).

이러한 요청에 일본의 생활협동조합 단체들은 1986년 일본네그로스 캠페인위원회(JCNC)를 발족시키고 필리핀 네그로스 섬으로 긴급 의료지원팀을 급파하였다. 일본의 생협단체들은 긴급지원과 원조에서 그치지 않고 ATC(Alter Trade Corporation)라는 공정무역 전담 회사를 설립하여 이듬해인 1987년 3월부터 네그로스 섬의 소규모 생산자 조직으로부터 마스코바도 설탕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김형미, 2006).

네그로스 지역의 설탕산업은 한때 단작 경제의 문제로 지역 농민들을 기아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설탕산업이 최악의 상황에 맞이한 바로 그 순간에 공정무역의 기치 하에 선진국의 의식 있는 소비자들과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시 주목 받은 것은 정제 설탕이 아닌 비정제 마스코바도 설탕이었다. 마스코바도의 공정무역상품화는 공정무역 파트너와 현지 생산조직 양자 모두의 노력에 의해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건강과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스코바도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고, 마스코바도 설탕 시장이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¹⁶⁾ 보다 건강한 대안들을 향한

16) <http://www.agribusinessweek.com/muscovado-sugar-a-new-sunshine-industry/>

변화된 소비자의 선호가 마스코바도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한 것이다.¹⁷⁾

4. 마스코바도 생산자 조직(PFTC)의 조직화 과정

1) 파나이 지역 개관



<지도 1> 파나이 섬의 위치

파나이 섬(Panay Island)은 서부 비사야스(Visayas)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 귀마라스 해협(Guimaras Strait)을 사이에 두고 필리핀 설탕산업의 중심지인 네그로스 섬(Negros Island)과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 꼴의 섬이다. 서쪽 해안가와 동쪽 해안가는 가파른 지세의 산지가 평행하게 달리고 있어 인구가 희박하고, 이 사이 북부에서 남부 해안까지 이어지는 약

1,655km 길이의 농사가 가능한 평원이 존재한다. 주요 산업은 벼농사와 사탕수수 등의 농업과 일부 지역에서 양식업이 성행하고 있다.¹⁸⁾ 북동부

17) 현재 필리핀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마스코바도 대부분은 유럽과 일본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http://showbizandstyle.inquirer.net/sim/sim/view/20080525-138667/Why-Muscovado-is-a-Must-These-Days#>).

의 자리한 세계적인 휴양지인 보라카이 섬으로 인해 관광산업도 발달하였다.

파나이 섬은 면적 12,011km²이고, 2007년 센서스 기준 인구는 3,973,877명이다. 행정체계상으로는 네 개의 주(province)로 구분되는데, 각각은 아클란(Aklan), 안티크(Antique), 까비스(Capiz), 일로일로(Iloilo)이다. 최대의 도시는 일로일로 시(Iloilo city)로 비샤야스 지방에서는 세부 다음으로 큰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이다.¹⁹⁾

파나이의 원주민(Panayanon)은 주로 말레이(Malay)족이었으나, 식민시기를 거치면서 스페인, 미국, 중국인 혼혈인들로 다양화되었다. 영어와 타갈로그어가 도심 지역에서는 통용될 수 있지만, 농촌지역으로 들어가면 일롱고(Ilongo) 계열의 토착어인 힐리가이논(Hiligaynon)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2) 마스코바도 생산자 조직화의 역사(略史)²⁰⁾

PFTC가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초기 역사에서 이탈리아의 공정무역 단체였던 CTM Altromercato(Cooperazione Terzo Monde Altromercato, 이후 CTM)의 대표인 달비(Rudi Dalvi)가 1990년 일로일로를 방문하여 이 지역의 여성조직인 KABALAKA의 대표 활동가였던 루스(Ruth Fe Salitos)와 면담을 한 것에 비롯되었다. 유럽 신생 공정무역 단체였던 CTM은 자국 내 월드샵(World Shop)에서 판매될 상품을 생산할 제3세계 파트너를 탐색하고 있는 중이었다.²¹⁾ 이들의 만남에는 스위스 내셔널(Swiss National, 또 다른 공

18) 출처: 브리태니카 영문 사전(<http://www.britanica.com/EBchecked/topic/440887/Panay>).

19) 출처: 위키백과사전(<http://en.wikipedia.org/wiki/Panay>).

20) 본 내용은 PFTC의 초대 대표인 루스(Ruth Fe Salitos)와의 인터뷰(2009년 8월 27일)를 기본으로 작성되었음.

21) CTM은 공정무역과 지원무역(supportive trade)을 핵심사업으로 하는 이탈리아의 사회단체이다. 130여 개의 어소시에이션과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무역 기구)의 슈마허(Rudi Shuhmacher)라는 기술자의 중재가 있었는데, 이 기술자의 아내가 일로일로 출신의 필리핀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이 만남은 역사적 우연성에서 출발한다.

한편 일로일로에 근거를 둔 KABALAKA는 본래 1984년에 조직된 여성운동 조직으로, 다양한 여성의 권리 옹호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CTM의 공정무역 참여 권유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KABALAKA는 1년간의 모색기를 거쳐 25명의 여성이 참여하는 공정무역회사를 파나이과일 무역회사(PFTC: Panay Fruits and Trading Corporation)를 설립하고, 회사를 1991년 7월 10일 필리핀 주식거래소에 공식 등록하였다. 이들은 일로일로 시 인근 지역에서 발롱곤 바나나(Balalongon Banna, 필리핀 토착 종 바나나임)를 수매하여, 이를 원재료로 유당 바나나 칩을 생산하여 CTM에 1992년 처음으로 납품하였다.

PFTC의 초기 대표였던 루스는 1992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국제공정무역기구 국제회의(Biennial IFAT Conference)에 CTM의 초청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 PFTC가 공정무역 조직으로 전환되는 데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회고한다. 루스는 이 국제회의를 통해 만나게 된 여러 국가의 공정무역 생산자와 구매기관들을 포괄하는 참가자들 일부를 일로일로로 초대하였다. 이 방문팀은 PFTC 및 PITAFA라는 생산자 조직(JABAFA의 전신)과 면담을 나누고, PITAFA가 위치한 하니웨이 군의 바랑가이²²⁾ 바디아간(Brgy. Badiangan in Municipality of Janiuay)의 생산지를 직접 방문하여 마스코바도 생산 재개의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1993년부터 PITAFA와 PFTC가 생산한 마스코바도가 CTM를 통해 이탈리아와 유럽 시장에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곧 PFTC는 유럽공정무역연합(EFTA)에 공정무역 생산자로 공식 등록되었다.

1994년 PFTC는 여성중심 조직구성에서 생산자와 노동자들을 포괄하

국내외에서 약 350여 개의 월드샵을 운영하고 있다(출처: CTM 홈페이지 <http://www.altromercato.it/en/>).

22) 필리핀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구역 단위로 우리나라의 동이나 읍에 해당한다.

는 다영역 구조(multi-sectoral structure)의 조직으로 변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명칭(PFTC: Panay Fruits and Trading Corporation → PFTC: Panay Fair Trade Center)도 변화되었다.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조직의 구성을 조정한 것이며, 이후 PFTC의 주력상품도 마스코바도로 전환되었다.

1993년 첫 수출 이후 그간 거의 명맥이 끊겨왔던 마스코바도 산업이 일로일로 군(郡)에서 재개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PFTC의 첫 번째 사탕수수 생산 파트너는 하니웨이 바디양간 지역을 기반으로 한 PITAFIFA라는 농민조직이었다. 곧 같은 군의 바랑가이 다봉의 생산자조직인 KAMADA와 인근 미나 군(Municipality of Mina)의 MOFAWA가 PFTC의 유관 생산자 조직으로 결합하였다. 곧 KAMADA의 사탕수수 생산량이 PITAFIFA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1995~1996년 사이 그 격차가 6배 이상 되자, KAMADA의 생산자 조직은 PFTC와 CTM에게 공식으로 자체 마스코바도 생산 시설의 건립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들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CTM은 이탈리아 볼자노(Bolzano) 지방자치정부의 지원을 받아 1997년 다봉 현지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착즙시설(sugar mill)을 건립하였고, 소유권도 KAMADA에서 넘겨주었다.

3) PFTC의 조직 구조

PFTC는 1991년 공식 설립된 단체로, 일로일로 시에서 남서쪽으로 30분가량 떨어진 오톤 군(Municipality of Oton)에 위치하고 있다. PFTC가 스스로 정의하는 조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PFTC는 파나이 민중 조직이 소유한 사업체이다. PFTC는 PFTC의 파트너인 민중조직을 위한 자원 형성, 민중에 의한 환경친화적 농산품의 거래, 민중 조직들을 위한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PFTC, 2009).

형식적인 면에서 PFTC는 필리핀 주식거래소에 공식등록된 일종의 사

업체로 최고의결기구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이고, 평상시에는 상주직원 중 임원들의 모임인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에 의해 일상적인 업무가 진행된다.²³⁾ 이사회에는 현재 PFTC의 초대 대표인 루스 현 대표인 로메오, 그리고 세 곳의 생산자 조합(KAMADA, JABAFA, MOFAWA)의 대표 등 총 5명이 소속되어 있다.

PFTC의 우산 아래 존재하는 혹은 협력관계에 있는 민중조직은 <표 2>와 같다. 세 단체는 마스코바도를 생산하는 농민조직(농업협동조합)이며, 나머지 세 단체는 일로일로와 인근 도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성조직(여성노동협동조합)으로 이들은 마스코바도 생산 및 상차, 바나나 칩 가공 생산, 바나나 칩 및 생강젤리 포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표 2> PFTC 유관 민중조직

조직명	원명칭	의미	회원수*	비고
KAMADA	Katillingban sang Mangunguma sa Dabong	다봉지역 농민 집단	80명	생산자조직 (Dabong 소재)
JABAFA	Janiuy Badiangan Farmers Association	하니웨이 바다 양간 농민 연합	83명	생산자조직 (Badiangan 소재)
MOFAWA	Mina Organic Farmers and Workers Association	미나 유기농 및 노동자연합	61명	생산자조직 (Mina 소재)
SAMPCO	San Antonio Multipurpose Cooperative	산안토니오다 목적협동조합	19명	마스코바도 포장 (도시빈민여성조직)
BCPWA	Banana Chips Producers and Workers Association	바나나 칩 생산자 및 노동자 연합	39명	바나나 칩 생산 및 가공(도시빈민여성조직)
NAGKAKAISA	Nagakaisa nga Kababainhan nga Imol sa Syudad ²⁴⁾	도시빈민여성 연합	67명	바나나 칩 포장 (도시빈민여성조직)

* 회원수는 2008년 기준임.

23) 2009년 8월 현재 PFTC의 상주직원은 임원과 일반 직원을 포함하여 총 24명이 고, 이들은 각각 생산, 마케팅 및 홍보, 산지 단위 특별 프로젝트, 조직관리 등 네 개의 영역에서 상근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4) NAGKAKAISA의 원 명칭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United women's alliance

세 개의 농민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 조합은 각각 바랑가이 다봉, 바랑가이 바디양간, 미나 군(Municipality of Mina)이라는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조합은 대략 60~80명 내외의 조합원(생산자)로 구성되어 있다. 인근의 네그로스 섬의 마스코바도 생산 농민들이 사탕수수 수확 후 원재료 그대로 ATFI(일본공정무역회사 ATJ의 필리핀 자회사)에 판매하는 것과 달리, 이들 생산자 조직은 자체의 착즙시설(sugar mill)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파나이 섬의 사탕수수 생산자들은 생산지에서 수확과 동시에 마스코바도 생산을 할 수 있으며, 생산된 마스코바도를 벌크 단위로 PFTC에 판매한다. 각 지역의 생산자 조직이 소유한 착즙시설은 대부분 해외 파트너들의 저리 용자나 기부에 의해 건설되었다.

생산자 조직의 회원은 주로 3ha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빈농들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 더 우선권이 부여된다. 공정무역과 유기농 재배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고 회원이 될 것을 본인이 직접 동의할 경우에 회원가입이 승낙된다. 현재 조직된 생산자들은 각 조직이 소유한 착즙시설의 생산 가용량에 맞춘 최대치의 숫자이기 때문에, 신규회원의 가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회원가입에는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하며, 수습기간이 끝나면 생산자조직의 이사회에서 신규 가입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입회비는 50PHP이며, 가입 시에만 지불한다.

4) PFTC가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PFTC의 주요 생산품은 마스코바도, 각종 과일 칩(바나나나 망고를 절단·건조시킨 간식거리), 생강젤리(ginger chew) 등이다. 다음의 <표 3>와 <표 4>는 PFTC가 생산한 공정무역 상품의 2007년과 2008년의 수출량 및 수출액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in the Syudad city. Syudad는 일로일로 지역의 대표적인 무주택 빈민(squatter) 지역이다.

<표 3> PFTC 상품 수출량(2007~2008년, 단위: kg)

연도 \ 상품	2007	2008
마스코바도	311, 590	306,417.5
바나나 칩	20,538.8	19,246.8
생강젤리	2,392	1,800

출처: 2008년 연간 사업보고서(PFTC, 2008).

<표 4> 마스코바도 구매조직별 수출량(단위: kg)

연도 \ 해외 구매자	2007	2008
CTM	175,070	162,100
S-M	79,680	55,440
DWP	16,000	33,000
EZA	26,340	11,160
A-3	13,500	6,500
HongKong	1,000	2,357.5
iCOOP Korea	n.a	35,860
총 수출량	311,590	306,417.5
총수출액(USD)	542,064.06	607,194.08
총수출액(KWD 환산액)	약 6,5000만 원	약 7,2000만 원

출처: 2008년 연간 사업보고서(PFTC, 2008).

이상의 수치들이 PFTC가 해외로 공정무역 상품들을 수출하여 얻은 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파나이 섬 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우선적으로 해외수출을 통해 PFTC가 획득한 수입은 조세의 형태로 오픈 군에 납부된다.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PFTC는 특별한 산업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오픈 군 안에서 3년째 최대 세금납부 기업이었다고 한다.²⁵⁾

이렇게 PFTC를 중심으로 설정된 공정무역 관계의 혜택은 실질적으로

25) PFTC 직원 인터뷰(2009.08.25).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고용과 예측가능한 수입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한 지역사회에 경제적 기여를 실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마스코바도 생산과정에서 최초 생산자에서 포장 및 판매 사업체인 PFTC에 이르는 과정은 각각 생산량 대비 판매-구매의 거래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컨대, 개별 농민들은 수확된 사탕수수를 단위 중량(kg)당 26PHP에 자신이 소속된 생산자 조합에 판매한다. 통상 50kg단위로 가격이 지불되는데, 환산하면 1300PHP/50kg를 조합이 생산자들에게 지불하는 셈이다. 구매한 사탕수수는 생산자 조합이 소유한 공장에서 일련의 가공과정(착즙→침전→균히기)을 거쳐 마스코바도 완제품으로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된 덩어리 상태의 마스코바도 완제품은 PFTC에 단위 중량(kg)당 31PHP에 판매되며, PFTC는 해외 구매자들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파쇄(granulation) 및 포장 작업을 거쳐 수출하는 것이다.

생산자조직이 주로 일로일로 인근 농촌 지역의 농민들로 구성되는 것에 비해, 상품의 가공 및 포장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일로일로 도시지역의 빈민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다양한 민중조직이나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으며, PFTC 사무실과 같이 있는 가공 및 포장 공장에서 근무한다. 마스코바도의 경우 생산주기가 6개월 안에 완료되기 때문에 대부분 일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 각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리도록 각 조직은 순환 업무 방식을 채택한다. 바나나 껍질 벗기기, 가공, 포장에 이르는 공장 내 작업에 대해 2009년 현재 책정된 임금은 일의 경중에 따라 205~250PHP가 지급되는데, 이는 일로일로 도시 노동자의 일당인 220PHP에 비해 비슷한 수준이다. PFTC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일당의 수준은 비슷한 대신 선계약에 의해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된다고 설명한다.

5. PFTC의 공정무역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1) 공정무역 생산자 조직의 복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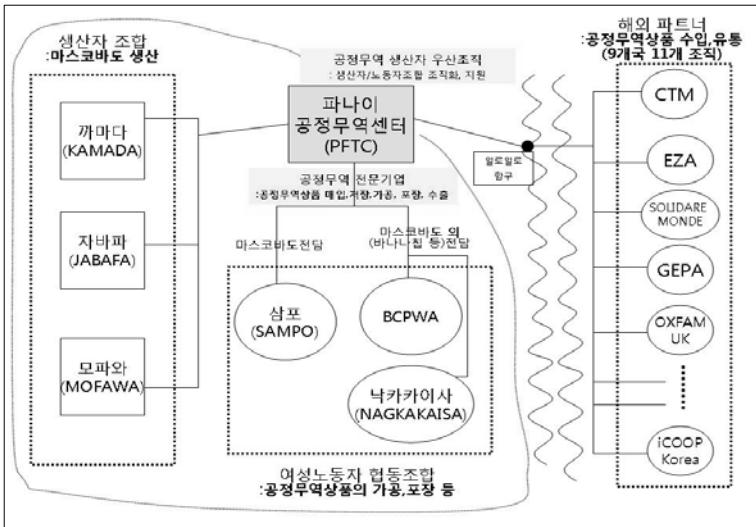
공정무역은 상품을 매개로 제1세계의 소비자와 제3세계의 생산자가 접촉하는 것이다. 공정무역 상품의 소비자인 선진국의 공정무역 캠페인에서 공정무역 생산자들은 흔히 가난한 소규모 농민들로 묘사되며, 공정무역은 이들의 삶을 상당히 개선시키고 있다는 이야기(story)가 종종 생산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사진과 더불어 홍보를 위해 동원된다. 구체적인 생산자를 호명하며 이들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부여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무역의 중요한 캠페인 전략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자 내러티브는 생산자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낭만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현실에서 공정무역을 위한 조직 간 네트워크나 계약의 복잡성을 가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현실에서 공정무역의 이처럼 개별화된 생산자들이 제1세계의 소비자들과 생각만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우선 지역사회 단위로 생산자 조직(대부분은 협동조합 형태)을 구성하여 집합적으로 생산 과정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생산자 조직들이 수입과 유통을 담당하는 제1세계의 공정무역기관들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보다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생산국 현지에서 전문적으로 무역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단체나 회사와의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PFTC는 생산자 조합과 노동자조합 및 일로일로 시의 시민사회 세력에 의해 설립된 일종의 기업이며, 이들을 대표하는 우산 조직(umbrella organization)이다. 다른 한편 PFTC는 공정무역의 국제적 네트워크²⁶⁾ 안에서 필리핀의 마스코바도의 최종 포장과 선적 수출을 담당하는 현지 수출 기업으로서 기능한다. 관행무역 안에서 생산 조

직과 무역 조직이 구분되어 있다면, 공정무역기구인 PFTC는 이러한 이중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2>는 PFTC의 국내/국제 네트워크를 묘사한 것이다.

<그림 2 > PFTC의 국내/국제 네트워크



현지조사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함

여기서 PFTC의 전자의 기능, 즉 우산조직으로서의 기능은 공정무역 생산자는 어떻게 규정되는가의 문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지조사 중이었던 2009년 8월 현재 PFTC는 국제공정무역 인증기관인 FLO-Cert에서 탈퇴를 선언해 놓은 상태였다. 탈퇴의 원인은 두 조직 사이의 다양한 갈등에서 비롯하는데, 그 중 PFTC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는 공정무역 생산자조직의 범위와 관련된 것이었다.²⁷⁾ PFTC 직원과

26) 2009년 8월 현재 PFTC와 공정무역 관계를 체결한 해외 파트너는 9개국 11개 단체였다.

27) 2005년 PFTC가 FLO-Cert의 공식 회원기관으로 등록된 이후, 매년 감사 시 마

의 인터뷰에 따르면, PFT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출범 당시 생산자조직, 여성노동자 조직, 기타 지역사회조직까지 아우르는 구조였다고 한다. 하지만 FLO의 감사관은 이 기관의 이사회를 ‘순수한’ 생산자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PFTC는 이를 현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여기서 FLO가 말하는 순수한 생산자조직은 사탕수수를 생산하는 농민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며, PFTC의 입장에서 생산자조직은 농민조직 외에도 가공 및 포장을 담당하는 노동자조직과 오픈 군내에서 공정무역에 관여하고 있는 기타단체들을 모두 포함한다. PFTC는 FLO-Cert의 결정을 받아들여 2007년 이사회 조직을 세 농민조직의 대표단과 전·현직 직원대표로 구성된 5인 체제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생긴 갈등은 양금으로 잠복되고 있었고, 이듬해 FLO-Cert의 연례감사에서 불거진 다른 문제들과 결부되면서 PFTC는 FLO 탈퇴를 선언하는 과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공정무역을 둘러싼 조직과 네트워크의 관계는 예상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관행무역에 비해 중개인의 개입여지를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단축시킨 것은 사실이나 공정무역을 수행하는 조직들의 내부적 복잡성은 증가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구조와 네트워크의 복잡성 증가는 공정무역의 실무영역이 점차 정교해지고 풍성해지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무역을 수행한 해수가 누적됨에 따라 조직의 구성과 해외 파트너와의 관계의 폭과 너비가 확장되고 내부의 관리력(governance)이 신장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18년의 공정무역의 경험을 통해 PFTC라는 구체적인 조직의 변화상을 보다 분석적으로 추적해 보겠다.

다 FLO측은 PFTC 이사회의 구성을 순수한 농민조직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필리핀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PFTC는 처음 설립 당시부터 다영역 조직(multi-sectoral organization)이었음을 주장하며, 이사회 변경 요구에 저항하였다.

2) 공정무역 생산자 조직의 변화와 발전

(1) 원조가 아닌 무역

PFTC가 지역의 한계와 국경의 벽을 넘어 국제 공정무역 네트워크에 진입하기까지 이탈리아의 공정무역조직인 CTM의 역할은 매우 주요했다. PFTC가 출범에서부터 유럽의 공정무역 시장에 진입하고, 공정무역 파트너를 확대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²⁸⁾ 그러나 PFTC와 CTM의 관계는 구매자 주도형 상품사슬처럼 일방적이라 할 수 없으며, 일종의 협력적 네트워크 관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 이유는 이 두 조직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공짜, 즉 무상제공이 없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PFTC의 사무실과 공장 시설 그리고 KAMADA가 소유한 바랑가이 다봉의 착즙시설(sugar mill)은 모두 CTM의 중재에 의해 이탈리아의 한 지방 정부의 지원금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PFTC는 CTM에 공급하는 물품대금 내에서 본사 및 공장 건설비용을 5년간 공제하면서 이 용자금을 갚았다. 이러한 선용자 후공제의 방식으로 현재 PFTC의 본사 건물과 부속 공장은 PFTC의 자체 소유가 되었다. PFTC의 생산자 조직들이 소유한 세 개의 착즙시설(sugar mill)도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건설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⁹⁾

28) PFTC의 초대 대표인 루스는 이메일을 통한 현지조사 종료 후 후속 교신 과정에서 PFTC의 발전과 안정화에서 있어 CTM이 해왔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PFTC의 설립 당시 바나나 칩의 주문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선(先) 지급해 주었으며, 바나나 칩 생산 설비의 건설비용을 보조하였다. ② PFTC가 사무실과 공장 시설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저리의 용자를 제공하였다. ③ CTM은 착즙시설 건설 및 개선, 유기농 전환과 인증 등 공정무역에 필요한 기술을 보조하고,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다른 조직(혹은 지방자치정부)과의 연계를 주선하였다(2009년 9월 10일 이메일 교신).

29) PFTC는 계획 중인 세 곳의 착즙시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건설되고 궁극적으로 민중조직의 소유로 전환될 것이다. 계획 중인 세 개의 공장 중 산라파엘 군에 건립된 공장은 한국의 iCOOP 생협과 동일한 조건으로 건설하자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있다.

(2) 유기농 전환과 기업가적 성장

1997년 KAMADA의 착즙시설 설립으로 마스코바도 생산량도 늘어나고 유럽 내 공정무역 파트너들의 주문량도 안정화되면서 CTM과 PFTC는 또 한 번의 전환을 준비한다. PFTC가 생산하는 마스코바도에 대해 유기인증을 받는 것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유기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간의 전환기가 요구되며, 아래로는 생산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바깥으로는 전문적인 기간에 의해 매년 점검과 감사를 받아야만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시기 이미 건강식품과 유기농 식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였으므로, 유기농으로의 전환과 인증 획득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PFTC는 유기농 사탕수수 전환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일로일로 대학의 SIBAT(Sibol ng Agham at Teknolohlya)³⁰⁾라는 기관에 프로젝트를 요청한다. 이들은 몇 달에 걸쳐 기존 데이터를 취합하고 PFTC, KAMADA, PITAFWA와의 주기적인 연석회의를 거치면서 “PFTC 3년 유기농 전환 프로그램(PFTC Three Year Organic Conversion Program)”을 1998년 최종 제출하였다. 이듬해(1999년) 이 기획안은 CTM에 전달되었고, CTM은 이를 다시 네덜란드의 공정무역 기술 센터인 Agro Eco Netherland에 자문을 구하였다. 이 기획안은 CTM의 내부 재가를 거쳐 Agro-Eco를 국제 자문기구로, SIBAT을 국내 자문기구로 하는 PFTC 유기농 전환 프로젝트가 통과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PFTC는 CTM 외에도 다양한 국내·외 조직들과 연계되거나 무역 파트너로 거래를 개시하면서 복잡하고 네트워크를 스스로 진화시켜왔다. CTM이 유기농 전환을 자극하고 다양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후속적인 관계의 확장과 발전은 전적으로 PFTC의 조직력 자체와 그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질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유기농 인증 과정은 PFTC의 내부적 관리력과 외부 네트워크의 구성

30)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cen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즉 과학기술센터임.

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일종의 기업가적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다.

(3) 공정무역 생산자의 목소리 찾기

18년 이상 공정무역을 통해 쌓아온 국제 무역 무에 관한 경험이 일종의 학습효과가 되어 PFTC의 시장 협상력을 신장시켰다. 지난 2009년 상반기에 PFTC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정무역 인증 시스템인 FLO-Cert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전술하였듯, PFTC와 FLO-Cert와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순수 생산자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는 인증단체와 공정무역을 ‘일종의 수단’으로 삼으며, 더 폭넓은 필리핀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는 생산자조직이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마찰을 일으킨 것이다. PFTC FLO 탈퇴는 개별조직의 이탈을 넘어서 세계 공정무역의 틀 안에서 생산자의 입장을 표현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갔다. 인터뷰 과정에서 초대 대표인 루스의 경우에는 FLO가 네슬레나 스타벅스와 같은 다국적기업에게 공정무역 인증을 제공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들의 목적은 “생산자의 생활수준 개선을 넘어서 자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지향”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FLO-Cert에서 탈퇴를 한다는 것은 PFTC가 관계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파트너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 파트너들은 자체의 회원조직 망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같은 유통업체에서 PFTC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인증마크가 사라지면 그 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서 거듭 확인된 PFTC의 탈퇴 결정은 매우 확고했으며, 이들은 파트너들이 이를 납득할 때까지 “거듭 되풀이하며(over and over)”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4) 새로운 사업 네트워크의 구축

다른 한편 PFTC는 두 가지를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하나는 FLO 외의

또 다른 국제적 유기농 인증 기구인 이탈리아 기반의 테라 마드레(Terra Madre)에 참여하였다. 테라 마드레는 직접 공정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슬로푸드를 지향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이 조직은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생산자 조직들의 목소리를 보다 대변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반다나 시바 외, 2009). PFTC는 이 조직체계에 유기농 마스코바도의 생산조직으로 이름을 올림으로써 FLO가 중심이 된 공정무역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역 파트너의 유럽 편향성을 벗어나 아시아와 태평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정무역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모색의 과정에서 한국의 iCOOP생협이나 홍콩의 FM International Resource를 새로운 해외 파트너로 얻을 수 있었다. 또한 PFTC는 2009년 8월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식품박람회(Asia Food EXPO)에 실무자를 파견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아시아 식품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려 노력 중이다.

필리핀 내에서, 더 좁게는 파나이 섬이라는 맥락 안에서 PFTC는 이미 18년 동안 건실하게 운영되어 온 중견 사업체이다. 특별한 산업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오픈 군(Municipality of Oton)에서 PFTC는 관내 최대의 세금 납부기관이 되었다. PFTC는 현재 계획 중인 3개의 신규 착즙 시설들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조직화된 농민조직에게 궁극적으로 이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소규모 농민들에게 단순히 시장가격보다 나은 조건의 이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소규모 농민들의 조직화와 자립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공정무역의 소비자 중심성을 해체하기 위한 목표 하에 마스코바도라는 공정무역 상품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확인하고 이어서 이

를 생산하는 PFTC라는 생산자 조직의 입장에서 구성되고 발전되어 온 공정무역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시도하였다. 현재까지 공정무역의 이니셔티브는 늘 제3세계를 돕기 위한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북반구 선진국의 ‘각성된 소비자’에게 주어져 왔다. 공정무역의 역사가 그러한 북반구 시민들에 의해 시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공정무역이 원조나 기부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상품 그 자체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필리핀의 사회역사적 맥락 안에서 설탕산업과 마스코바도의 변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유기농 마스코바도 설탕이 단순히 거래되는 상품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다층적 의미를 지닌 상품 이상임을 보여주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필리핀 파나이 섬에 자리한 PFTC라는 공정무역 조직의 역사와 현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단히 세부적인 거래량과 생산량 조직 구조를 파고든 까닭은 독자들로 하여금 “공정무역을 통해 제3세계 생산자들과 ‘호혜적인 상호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본 연구가 마스코바도 생산자조직의 권한강화 과정을 강조한 결과 자칫 PFTC에 소속된 생산자나 노동자들 나아가 파나이 섬의 주민들은 이미 빈곤의 덫에서 빠져나오고 PFTC는 이미 관행적인 국제무역 기업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FTC를 중심으로 만들어 온 18년의 공정무역의 경험이 이 조직에 소속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공정무역만으로 이 섬의 빈곤 문제나 필리핀의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사정은 PFTC를 대표하는 세 명의 상근직원들이 스스로 내린 공정무역에 대한 정의에서도 잘 드러난다.

도입된 지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공정무역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실제로 가난한 제3세계

를 돕는 고상한 원조활동이나 자기과시적 소비를 넘어서고 있는지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정무역 시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무역의 진정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합의하거나 공정무역의 실체에 대한 한국인의 시점에서 살펴본 관찰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타자의 눈이 아닌 우리의 시점에서 관찰하고 기록하게 된다면 “공정무역 생산자는 곧 제3세계 가난한 농민들”이라는 도식화된 낭만화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 것이다. 이러한 탈낭만화는 제한된 독자과 문어체의 제한된 재현방식을 벗어나 사회적으로 발화되고, 소통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증폭될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관찰과 연구의 과정이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확대된다면, 한국과 같은 신흥 선진국이 참여하게 되는 공정무역은 보다 호혜적이며 공정무역의 이념형에 가까운 국제협력의 한 형태를 증명하는 사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Network approach on the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Fair Trade Producers: case study on Mascovado producers' organization in Panay, the Philippines

저자영문명

Fair Trade is one of alternative movements motivated in European countries and America aiming “Trade not Aid” since 1960s. The main logic of Fair trade is to re-articulate between the ‘acknowledged consumers’ in the developed worlds and ‘poor farmers/producers’ in the developing worlds. Under this division, however, the consumers’ role in first worlds has been emphasized to take an initiative of Fair trade while the passivity of farmers of the third worlds has re-inscribed in the discourses of fair trade. Recently, the research trend change from global commodity chains(GCC) into global production network(GPN) approach in economic geography literatures offers an appropriate framework to demonstrate the active role of producers inside fair trade relationships. To overcome the dichotomy in the fair trade discourses, this article trie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active role of producer group in the fair trade network beyond simple producing partner selected by fair trade organizations in the developed countries. To fulfill this aim, I study the case of Mascovado producing organization in Panay Island, the Philippines.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reconstruct producers’ voices as an alternative discourse on the fair trade.

Keywords: fair trade, global production network(GPN), producers’ organization, alternative discourse, Mascovado

참고문헌

- 김정희. 2006. 「필리핀 네그로스 지역의 공정무역과 여성」. 《여성학논집》, 23(2), 109~145쪽.
- 김형미. 2006. 「생협의 사명과 페어트레이드(공정무역)」. iCOOP생협연합회 내부자료.(미간행).
- 박영숙. 2003. 「설당. 또 하나의 아름다운 관계」. 《아시아NGO센터 제1기 장기연구 최종보고서》(미간행).
- 엄은희. 2008. 「필리핀 광산업의 신자유주의화-제도변화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연구》, 18(2), 69~102쪽.
- _____. 2009. 「한-동남아의 식품 공정무역 네트워크의 현황과 전망」. 제1차 한국동남아학회-교토대동남아연구소 공동기획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 이정옥. 2008. 「세계 공정 무역의 흐름과 한국 상황」. 『iCOOP생협협동조합연구소 2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7~26쪽.
- 한주성. 2005. 「[書評] Geographies of Commodity Chains (상품사슬의 지리학)」. 《대한지리학회지》 40(3), 369~371쪽.
- _____. 2009. 「상품·교통·공급사슬개념과 관련된 지리학의 연구와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44(6), 723~744쪽.
- Billig, M. S. 2003. *Barons, brokers, and buyers: the institutions and cultures of Philippine sugar*. University of Hawaii Press.
- Coe, N. M., Dicken, P., and Hess, M. 2008. "Global production networks: realizing the potential."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8(3), pp.271~295.
- Dicken, P., Kelly, P.F., Olds, K. and Yeung, H. W. 2001. "Chains and networks, territories and scales: towards a relational framework for analysing the global economy." *Global networks*, 1(1), pp.99~123.
- Fridell, G. 2006. "Fair Trade and Neoliberalism." *Latin American Perspective*, 33(6), pp.8~28.
- Gerrefi, G. 1994. "The organization of buyer-driven global commodity chains: how US retailers shape overseas production networks." in Gereffi, G. and Korzeniewicz, M.(eds). *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Westport. London: Praeger.
- Gereffi, G., Humphrey, J. and Sturgeon, T. 2005. "The governance of global value chain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2(1), pp.78~104
- Gwynne, R. N. Klak, T. and Shaw, D. J. B. 2003. *Alternative Capitalisms: Geographies of Emerging Regions*. London: Arnold.
- Hartwick, E. 2000. "Towards a geographical politics of consump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32, pp.1177~1192.

- Hughes, A. 2001. "Global Commodity networks, ethical trade and governmentality: organising business responsibility in the Kenyan cut flower industr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6, pp.390~406.
- Hughes, A. and Reimer, S.(eds). 2004. *Geographies of Commodity Chains*. London: Routledge.
- James, Glyn (2004). *Sugarcane*. Blackwell Publishing.
- Jenkins, R. 2002.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Oxfam." *The Guardian*, 7 Oct.:16.
- Larkin, J. 1993. *Sugar and the Origins of Modern Philippine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ntz, S. W. 1985. *Sweetness and Power: The Place of Sugar in Modern History*. New York: Viking.
- Murray, W. 2006. *Geographies of Globalization*.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 Nicholls, A. and Opal, C. 2004. *Fair Trade: Market-driven ethical consumption*. London an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PFTC. 2009. Panay Fair Trade Center. Philippines(프레젠테이션 자료).
- Phelan, J. L. 1959. *The Hispanization of the Philippines: Spanish Aims and Filipino Response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Porter, M. E. 1990.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London: Macmillan(마이클 포터 저·조동성 역. 2008. 『마이클 포터의 경쟁우위: 탁월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법』. 21세기 북스).
- Ransom, D. 2001. *The no-nonsense guide to Fair Trade*. London: Verso(데이비드 랜섬·장윤정 역. 2007. 『공정무역 가능한 일인가』. 서울: 이후).
- Raynolds, L., Murray, D. and Wilkinson, J. 2007. *Fair Trade: The Challenges of Transforming Globalization*. New York: Routledge.
- Shiva, V. et al. 2007. *Manifestos on the Future of Food and Seed*. Massachusetts: South End Press(반다나 시바, 카를로 페트리니, 찰스 윈저, 마이클 폴란·송민경 역. 2009 『공존을 위한 먹을거리 혁명 테라 마드레』. 다른).
- Shurz, W. L.1939. *The Manila Galleon*. New York: E. P. Dutton.
- Trentmann, F. 2007. "Before 'Fair Trade': Empire, Free Trade, and the Moral Economies of Food in the Modern World." *Environment and Planning D*, 25(6), pp.1079~1102.
- Whatmore, S and Thorne, L. 1997. "Nourishing networks: Alternative geographies of food." in Goodman, D and Watts, M.(eds). *Globalising Food: Agrarian Questions and Global Restructuring*. London: Routledge
- Whatmore, S. 2002. "From farming to agri-business: global agri-food networks." in Johnston, R. J., Taylor, P. J. and Watts, M.(eds). *Geographies of Global Change*. Oxford: Blackwell.

웹자료

식약청 보도자료<2009.11.03> (<http://www.kfda.go.kr/index.lofda?mid=56&segr=10532>)

(접속일: 2010.06.05)

가난한 이들의 설탕 마스코바도 <http://www.isle-of-man.com/manxnotebook/full-text/hk1890/ch04.htm>(접속일: 2010.06.05)

위키페디아 영문사전 마스코바도 <http://en.wikipedia.org/wiki/Muscovado> (접속일: 2010.06.05)

위키페디아 영문사전 파나이 (<http://en.wikipedia.org/wiki/Panay>)(접속일: 2010. 06. 05)

브리태니카 영문사전 파나이 (<http://www.britanica.com/EBchecked/topic/440887/Panay>)(접속일: 2010.06.05)

Agribusinessweek<2008.06.24> (<http://www.agribusinessweek.com/muscovado-sugar-a-new-sunshine-industry/>)(접속일: 2010.06.05)

CTM Altromercato <http://www.altromercato.it/en/> (접속일: 2010. 06. 05)

Inquirer<2008.05.25>

(<http://showbizandstyle.inquirer.net/sim/sim/view/20080525-138667/Why-Muscovado-is-a-Must-These-Days#>)(접속일: 2010.06.05)

WFTO. 2009. History of Fair Trade - SIXTY Years of Fair Trade(<http://www.wfto.com>-접속일: 2010.05.24)

논문접수일: 2010. 3. 29

논문수정일: 2010. 4. 16

게재확정일: 2010. 4. 23